

중국의 차산업 동향*

김 부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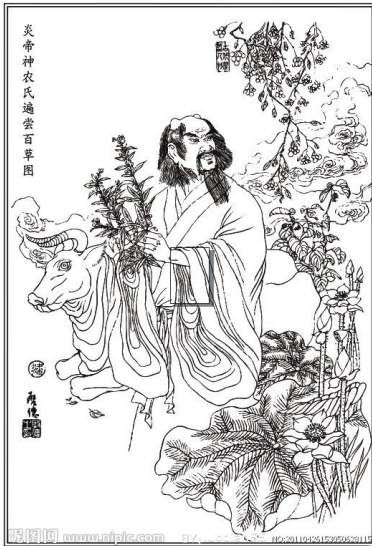
1.1. 중국 차의 역사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차를 마시는 중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일상에서 차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차가 오랫동안 함께 했음을 알려 준다.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 기원은 문헌상으로 중국의 신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회남자(淮南子)』에는 신농씨(神農氏)가 백 가지 풀을 맛보고 하루에 72가지 독에 중독되어도 차로 해독했다(神農嘗百草, 日遇七十二毒, 得茶而解) 고 쓰여 있다. 중국 한족은 스스로를 신농씨의 자손으로 생각한다. 신화에 따르면, 신농씨는 처음으로 농기구(보습과 곡괭이)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오곡 심는 법)을 전파하여 중국 농업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온갖 종류의 풀이 약초인지 독초인지 구별하기 위해 직접 먹어보았는데, 독초에 중독되면 차를 마셔서 해독했다고 전해진다. 신농씨가 차잎을 생으로 씹어 해독이 되었다고도 하고, 마른 차잎이 우연히 끓이고 있던 물에 떨어지면서 차를 발견했다고 한다.

* (bkim73@krei.re.kr).

그림 1 백 가지 풀을 맛보는 신농씨(좌)와 신농씨 석상(우)



자료: 바이두(百度)백과(baike.baidu.com).

처음에 차는 중국에서 제사에 쓰이는 특별한 것이었다.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오늘날과 달리,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특별한 의식이었던 셈이다. 그 후, 찻잎을 채소로 섭취하거나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00여 년 전 한나라 때까지 차는 비교적 새로운 음료였다.

수나라(581-618) 때, 차는 약용으로 쓰였다. 수나라를 세운 수문제 때 건설을 시작한 대운하를 통해 강남에서 생산한 풍부한 물산이 화북지방으로 유통되면서, 남쪽에서 생산된 차가 북쪽에 대량 유통되는 계기가 되었다. 4-5세기에는 찻잎에서 나는 쓴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쌀, 소금, 향신료, 생강, 꿀꺽질 등을 차에 넣어 함께 음용했다. 당나라(618-907) 시절에는 모든 계층이 차 마시는 것을 즐겨서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 수도 장안에는 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차관(茶館)이 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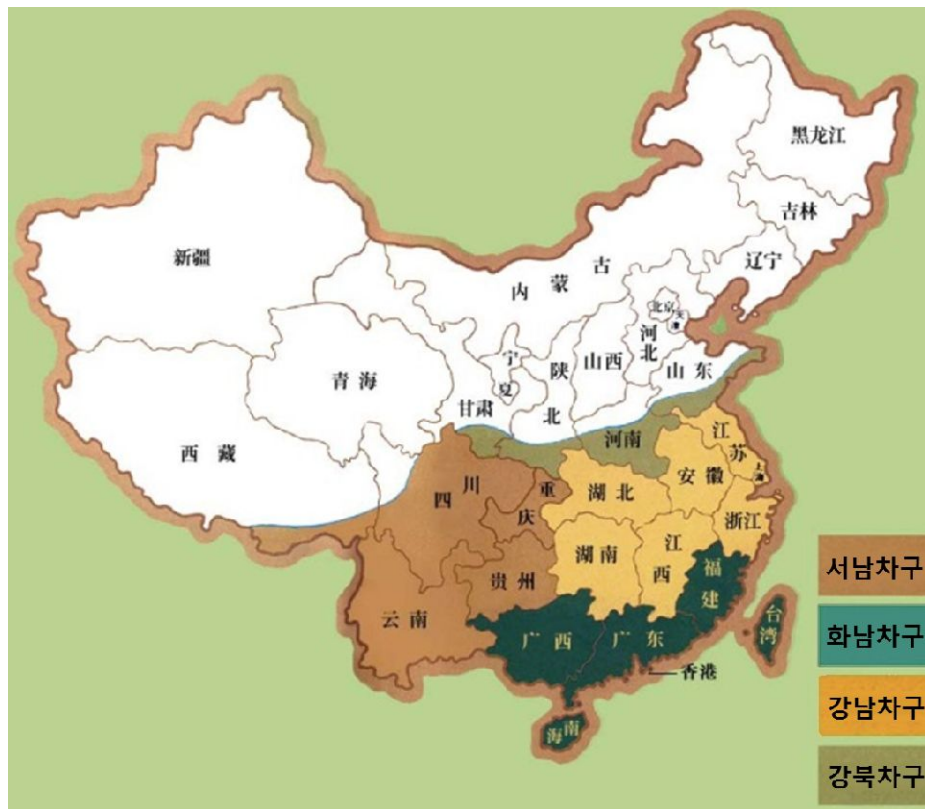
차의 각성 성분인 카페인이 승려들이 장시간 명상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차는 불교 사원에서 널리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불교 사원에서 다원을 가꾸었다. 당나라 때 쓰인 세계 최고(最古)의 다서(茶書)인 『다경(茶經)』의 저자 육우(陸羽)도 어려서부터 고아로 절에 맡겨져 절에서 자랐다. 육우는 『다경』에서 차를 재배하는 법, 차를 마시는 법, 차를 달이기에 좋은 물과 차의 분류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송대(960-1279)에는 끓인 물에 차 분말을 넣어 마시는 분말차가 유행했지만,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원나라(1279-1368) 이후부터 중국 문화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원대 이후, 중국인들은 찻잎을 끓인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에 익숙해졌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1.2. 중국의 4대 차 재배 지구

중국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한반도 면적의 44배, 남한 면적의 96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중국 영토에 우선적으로 기인한다. 지리적 위치와 기후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차가 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차 생산 지구는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 중국의 4대 차 재배 지구



자료: 半日闲 (<http://www.banrix.com/mf/tea/fazhan/scmy.htm>).

1.2.1. 강북

강북차구(茶區)는 산둥성, 하남성, 섬서성, 감숙성, 안휘성과 강소성 북부로 이루어진 양자강 이북 지역이다. 중국의 차 생산 지역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연평균 기온이 15-16도로 비교적 낮고, 강우량이 풍부한 편이다. 차의 떫은맛을 내는 카테킨의 함량이 낮은 소엽종의 차나무가 주로 자라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만드는 녹차가 주 품종이다.

연중 강우량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가뭄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기후가 차 재배에 적합한 산간 지역에서는 일부 고급차가 생산되기도 한다. 하남성 신양시의 해발 500~800미터 지역에서 재배되는 신양모침(信陽毛尖)과 안휘성 육안에서 재배되는 해바라기씨와 모양이 유사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육안과편(六安瓜片)이 그 예이다.

1.2.2. 강남

강남차구는 양자강의 중류와 하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절강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안휘성과 강소성의 남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차구의 연간 차 생산량이 전국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중국 최대의 차 주산지이다.

이 지역은 봄과 여름에 집중된 강우와 뒤이은 건조한 가을 기후가 특징적이다. 차밭은 주로 구릉이나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강남차구에서 생산된 차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녹차, 흑차, 청차(오롱차), 향기가 강한 반발효차 등 다양한 품종의 차가 생산된다. 그중 절강성의 용정(龍井) 또는 서호용정과 강소성의 벽라춘(碧螺春) 또는 동정벽라춘이 명차로 유명하다. 또한 흑차, 청차(오롱차), 백차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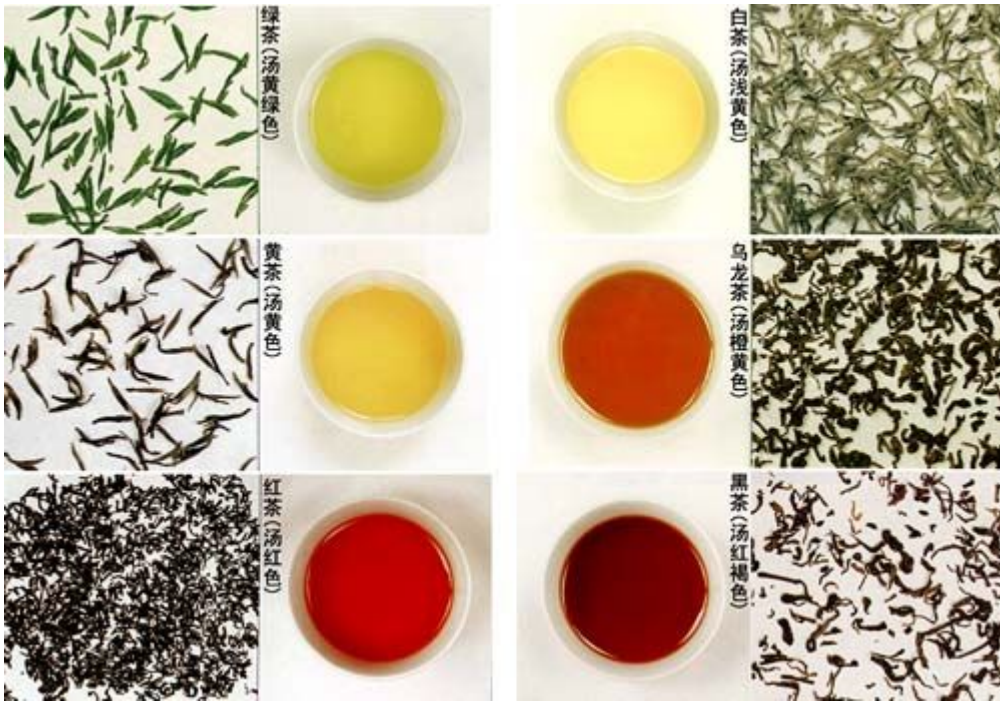
1.2.3. 와남

화남차구는 중국 남부의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 광서장족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적토로 뒤덮혀 있으며 연평균 온도가 19-22도에 이르고 연중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최대 10개월간 차 농사가 가능하다. 카테킨 함량이 높은 대엽종의 차나무가 주로 자라기 때문에 떫은 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효차를 많이 생산한다.

1.2.4. 서남

서남차구는 차나무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 차구는 중국 서남부의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서장자치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녹차, 흑차 등을 생산한다. 서남차구

그림 3 중국의 6대 차류와 탕색



주: 왼쪽 열 위에서부터 녹차, 황차, 홍차이고, 오른쪽 열 위에서부터 백차, 청차(오롱차), 흑차임.
 자료: 半日闲 (<http://www.banrix.com/mtf/tea/fazhan/scmy.htm>).

의 토양은 중국 내에서 유기물 함량이 가장 높다. 또한 이 지역의 복잡한 지형과 다양한 기후로 인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운남성 보이차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차 생산이 가능하다.

1.3. 중국의 6대 차류(茶類)와 제조 과정

모든 차는 차나무의 잎을 사용하여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차나무의 재배 지역, 우려낸 차의 색깔과 맛, 차를 만드는 방법(製茶法)에 따라 수백 수천가지의 차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차는 제다법에 근거하여 녹차, 홍차, 청차(오롱차), 백차, 황차, 흑차로 분류한다.

우선 일러둘 점은 중국 차를 분류할 때 쓰이는 발효(醱酵)라는 용어는 인체에 유익한 유기물 분해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찻잎에 있는 산화효소에 의한 찻잎의 색

변화를 의미한다. 보통 찻잎 색의 변화 정도를 발효도인 %로 나타내는데, 이는 통상적인 의미로 발효(fermentation)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미생물이 관여하여 만들어진 흑차를 제외하면 나머지 차들은 진정한 의미의 발효차가 아니다.

1.3.1. 녹차

녹차는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며 전체 차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녹차는 찻잎을 발효시키지 않고 고온의 솥에서 덥고, 1) 비비고, 건조시켜 만든다. 이때 찻잎에 열을 가하여 찻잎에 있는 폴리페놀의 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데, 이를 살청(殺靑)이라고 한다. 살청은 산화 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찻잎이 붉게 혹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막아준다. 이 때문에 찻잎은 본래의 푸른색을 유지하고, 우려낸 차의 색깔도 푸르다. 녹차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서호용정, 동정벽라춘, 신양모침, 육안과편이 녹차에 속한다.

1.3.2. 홍차

영어로 black tea 라고도 알려진 홍차는 건조 전에 이미 95% 정도로 완전히 발효된 찻잎을 사용하여 만든다. 완전한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차를 우려낸 물이 진한 붉은빛을 띤다. 홍차라는 이름이 홍차의 탕색에서 나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영어로 black tea라고 하는 까닭은 홍차의 찻잎이 검기 때문이다. 홍차는 다른 차 종류에 비해 향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차의 약 75%가 홍차이다. 또한 서양에서 소비되는 차의 90% 이상이 홍차이며,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차종이다. 안휘성의 기문홍차(祁門紅茶), 운남성의 전홍홍차(滇紅紅茶) 등이 명차로 유명하다. 그중 기문홍차는 스리랑카의 우바(Uva) 홍차, 인도의 다즐링(Darjeeling) 홍차와 함께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이다.

1.3.3. 청차(오롱차)

청차는 중국 동남부 지역의 특산품으로 복건성, 광둥성, 대만이 원산지이다. 생산 과정을 거친 찻잎은 색이 검붉고 모양이 가늘고 구불구불하다 하여 우롱차(烏龍茶)라고도 불린다. 청차는 부분적으로 발효 과정(20%~70%)을 거친 반발효차로서, 녹차와

1) 물기가 조금 있는 재료(찻잎, 고기, 야채, 곡식)를 물을 더하지 않고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서 익힘(네이버 국어사전).

홍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찻잎의 가장자리는 붉은색, 가운데는 녹색을 띤다. 또한 녹차의 깔끔하고 향긋한 향과 홍차의 진하고 상쾌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청차는 녹차와 홍차의 생산 기술을 결합시켜 만든다. 원료로 쓰는 크고 거친 찻잎을 부드럽게 하여 쉽게 우려낼 수 있도록 찻잎을 바구니에 넣고 흔드는 작업인 요청(搖靑)이 특징적이다. 명차로는 복건성 안계현에서 생산되는 안계철관음(安溪鐵觀音), 우이산 지구에서 생산되는 무이암차(武夷岩茶), 광둥성 봉황산 지구에서 생산되는 봉황단종(鳳凰單縱)이 있다.

1.3.4. 백차

백차는 복건성의 특산품으로 녹차와 더불어 최소한의 산화 작용을 거친 차이다. 막 돌아난 차순 또는 어린 찻잎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다. 생산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덫고 비비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백차는 홍차처럼 갈변 현상이 일으키지 않고 본래의 상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찻잎 뒷면에 붙어 있는 하얀 솜털로 인해 찻잎에서 우려낸 물도 은백색에 가깝다. 발효 정도는 약 10%이다. 또한 백차는 해열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광둥 사람들과 홍콩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 하얀 솜털이 많은 새싹으로 만든 백호은침(白毫銀針)과 하얀 솜털이 많은 어린 잎으로 만든 백모단(白牡丹)이 유명하다.

1.3.5. 황차

황차는 녹차와 비슷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이때 찻잎을 비비는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황차의 특징인 황색의 찻잎과 찻물은 민황(悶黃)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민황은 살청을 통해 수분을 일부 증발시킨 찻잎을 젖은 보자기로 덮어 밀폐된 공간에서 찻잎이 엽록소에 의해 황색으로 변하도록 한다. 이때 엽록소에 의한 비효소성 변화이므로 황차를 후발효차라고도 한다. 호남성의 군산은침(群山銀針)이 가장 대표적인 황차이다.

1.3.6. 흑차

흑차는 덫고 비비는 과정을 거쳐 이미 가공된 찻잎을 오랫동안 발효시켜 만든다. 이 때문에 후발효차라고도 한다. 발효 과정에서 물을 뿌려 고온다습한 환경을 조성하여 발효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물을 뿌리지 않고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후 발효시키는 과정이 전자의 경우 3~5년이 걸리고, 후자의 경우 5~8년이

걸릴 정도로 매우 까다롭다.

오래될수록 맛과 향기가 옅어지는 일반적인 중국 차와 달리 흑차는 세월과 함께 풍미가 점차 더해진다. 보관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중국 차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산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지만, 흑차는 보관 중에 산화 작용으로 풍미가 변한다.

흑차는 중국의 특산품으로 장기 저장 또는 장거리 운송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압축된다. 과거에 러시아로 수출될 정도로 가장 많이 수출이 되는 차종이었다. 흑차의 최대 소비지는 신선 채소의 생산이 불가능한 티베트, 몽골 등 해발 3,000미터 이상의 고원 지대와 건조한 사막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의 영향으로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차를 마심으로써 신선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물성 영양소(예: 비타민, 아미노산 등)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흑차는 티베트, 몽골, 위구르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운남성의 보이차(普洱茶), 사천성의 사천변차(四川邊茶), 호남성의 호남긴입차(湖南緊壓茶) 등 흑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한 차마무역(茶馬貿易)이 성행했다. 또한 흑차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인 차이기도 하다.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보이차가 대표적인 흑차이다.

2. 생산 동향

2.1. 차 재배면적 및 생산량

2.1.1. 차 재배면적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10만 ha 내외를 유지하던 중국의 차 재배면적은 그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265만 ha를 기록하였다<표 1, 그림 4 참조>. 이는 1991년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이다. 차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아지면서, 차 재배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차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1.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차 재배 지역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주요 차 생산지는 양자강 유역, 남동 해안 지역,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과 시장 규제로 차 생산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생산이 더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건이 유리한 지역의 차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90%를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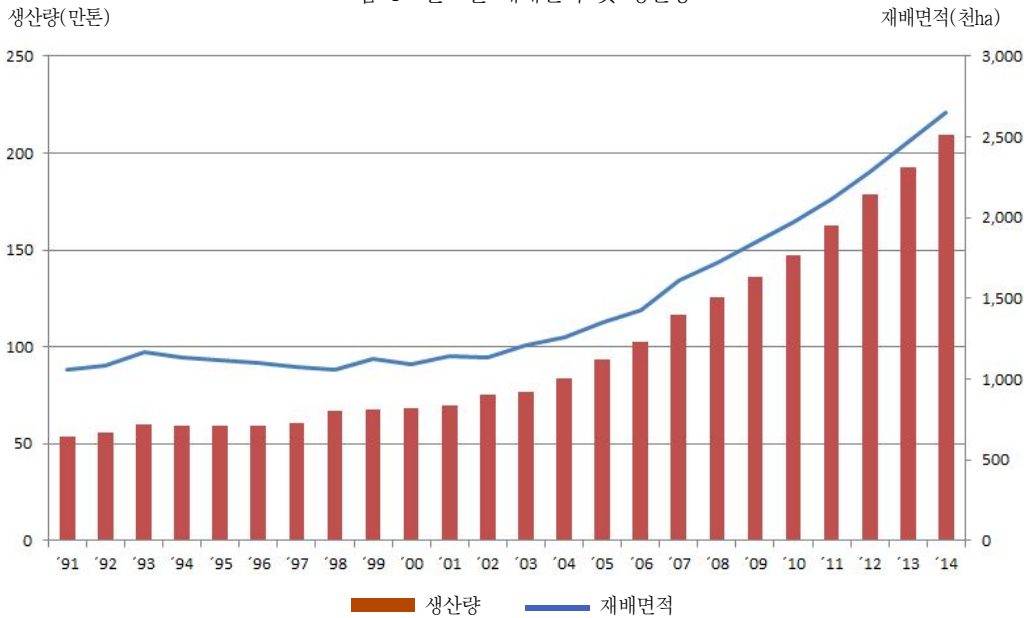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ha, 만톤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재배면적	1,060	1,084	1,171	1,135	1,115	1,103	1,076	1,057
생산량	54	56	60	59	59	59	61	67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재배면적	1,130	1,089	1,141	1,134	1,207	1,262	1,352	1,431
생산량	68	68.3	70	75	77	84	93.5	102.8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재배면적	1,613	1,719	1,849	1,970	2,113	2,280	2,469	2,650
생산량	116.5	125.8	135.9	147.5	162.3	179.0	192.4	209.6

자료: 중국통계연감(2015).

그림 4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 중국통계연감(2015) 자료 재구성.

현재 중국의 20개 성(자치구 포함)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운남성, 귀주성, 호북성, 사천성, 복건성, 절강성, 안휘성, 하남성, 호남성, 섬서성, 중경이 주산지이다 <표 2 참조>.

2014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차 재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운남성(40만 9,400ha)이며, 그 다음으로 귀주성(36만 9,300ha), 호북성(30만 3,800ha), 사천성(30만 5,700ha), 복건성(24만 2,900ha), 절강성(19만 5,600ha) 순이다. 이들 지역이 전체 차 재배면적의 약 69%를 차지한다.

2.1.2. 차 생산량

중국의 차 생산량은 차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4년에 209만 6,000톤이 생산되어 1990년 대비 약 4배 증가하였다<표 1, 그림 4 참조>.

<그림 4>의 막대그래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생산량이 1990년대에는 연평균 약 2.38%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서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였다.

표 2 중국의 주요 차 재배지역(2014년)

단위: 천ha, 만톤

지역	복건	운남	사천	호북	절강	호남	안휘	광둥
재배면적	242.9	409.4	305.7	303.8	195.6	127.5	166.6	48.2
생산량	37.2	33.5	23.4	25	16.5	16.2	11.5	7.4
지역	귀주	하남	광서	강서	중경	섬서	강소	산둥
재배면적	369.3	105.5	67.1	77.8	37.7	121.4	34.4	23.9
생산량	10.7	6.1	5.9	4.7	3.4	4.9	1.5	1.8
지역	해남	감숙	산서	서장				
재배면적	1.3	11.4	0.0	0.5				
생산량	0.1	0.1	0.0	0.0				

자료: 중국통계연감(2015).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차 최대 산지는 복건성으로 전체 생산량의 17.7%에 해당하는 37만 2,000톤을 생산했다. 그 다음으로 차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운남성(33만 5,000톤), 호북성(25만 톤), 사천성(23만 4,000톤), 절강성(16만 5,000톤), 호남성(16만 2,000톤) 순이다. 이들 지역의 생산량은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표 2 참조>.

<표 3>은 세계 주요 차 생산국의 차 생산량과 채엽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전 세계 채엽면적 중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03년까지 전 세계 차 생산량의 약 23% 정도를 생산했다. 그 후, 생산성 증가와 재배면적 증가에 기인하여 2004년부터 그 비중이 높아지더니, 2013

년에는 전 세계 차 생산량의 37%를 생산하게 되었다. 같은 해, 중국은 전 세계 채엽면적의 47%를 차지했다.

표 3 세계 8대 차 생산 국가의 차 생산량 및 채엽면적

단위: 천ha, 만톤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중국	채엽면적	879.5	1041.5	1426.0	1644.6	1735.2	1750.0
	생산량	68.3	93.4	145.0	162.3	178.9	192.4
인도	채엽면적	490.0	521.0	579.0	600.0	605.0	563.9
	생산량	82.6	90.7	99.1	109.5	113.5	120.8
케냐	채엽면적	120.3	141.3	171.9	187.8	190.6	198.6
	생산량	23.6	32.8	39.9	37.7	36.9	43.2
스리랑카	채엽면적	188.9	212.7	221.9	221.9	221.9	221.9
	생산량	30.5	31.7	33.1	32.7	33.0	34.0
베트남	채엽면적	70.3	97.7	113.2	114.3	115.9	121.6
	생산량	6.9	13.2	19.8	20.6	21.6	21.4
터키	채엽면적	76.7	76.6	75.8	75.8	75.8	76.4
	생산량	13.8	21.7	23.5	22.1	22.5	21.2
이란	채엽면적	32.1	34.0	19.4	23.9	24.0	24.5
	생산량	4.9	5.9	16.5	10.3	15.8	16.0
인도네시아	채엽면적	121.2	142.8	124.5	123.3	121.6	122.4
	생산량	16.2	16.7	15.0	15.0	14.3	14.8

자료: FAOSTAT(접속일자: 2016.6.30).

2.1.3. 차 생산성

차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1년 ha당 509kg에서 2014년 791kg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에 중국의 차 생산성은 다른 차 생산국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었지만, 1993년부터 생산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성이 소폭 변동하였지만,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차 생산성은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중국의 차 재배지역별 생산성을 비교하면, 화남지역의 광동성과 복건성이 각각 1,535kg/ha, 1,531kg/ha로 생산성이 가장 높고, 호남성(1,271kg/ha), 중경(902kg/ha), 광서성(879kg/ha), 절강성(844kg/ha), 호북성(823kg/ha), 운남성(818kg/ha)이 그 뒤를 잇는다.

2011년에는 늦봄 한파와 기묘의 영향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ha당 약 1,000kg에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2.1.4. 차의 종류에 따른 생산 구조

개혁개방 이후, 시장 수요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차 산업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녹차는 최근에 생산량 비중이 다소 감소했지만, 중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차로써 6대 차류 중에 생산량 1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전체 차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차와 청차(오롱차)의 생산 비중은 다소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흑차, 홍차, 백차, 황차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흑차, 백차, 황차는 중국 고유의 차로써 판매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4년에 녹차, 홍차, 청차(오롱차)의 생산량은 각각 134만 4,000톤, 23만 1,000톤, 23만 1,000톤이었고, 전체 생산량의 각각 64%, 11%, 11%를 차지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녹차 생산이 단연 압도적이며, 그 뒤를 청차(오롱차)와 홍차가 서로 막상막하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따라오고 있다.

청차(오롱차) 생산은 시장 조정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감소하였다. 반면에 홍차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홍차 생산량은 불과 3년 전인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에 23만 1,000톤이 생산되었다. 이로써 홍차 생산 비중은 2011년에 7%에서 2014년에 11%로 급상승하였다. 흑차 생산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에 6만 4,000톤에서 2014년에 15만 1,000톤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 밖의 기타 차 생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표 4 차종별 생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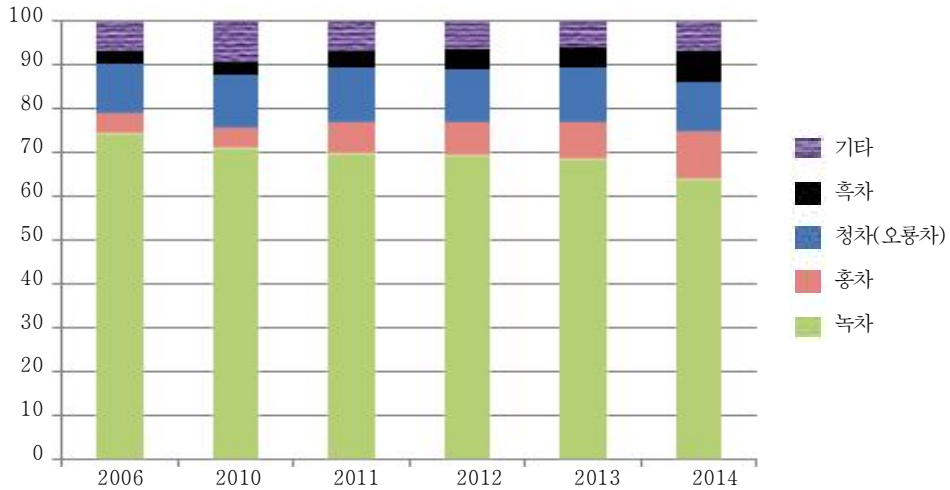
단위: 백만톤, %

구 분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녹차	생산량	0.764	1.046	1.138	1.248	1.314	1.344
	비율	74.31	70.94	70.09	69.72	68	64.00
홍차	생산량	0.048	0.068	0.114	0.132	0.160	0.231
	비율	4.70	4.62	7.00	7.4	8.31	11.00
청차	생산량	0.116	0.180	0.199	0.218	0.237	0.231
	비율	11.30	12.20	12.31	12.2	12.3	11.00
흑차	생산량	0.028	0.041	0.064	0.079	0.092	0.151
	비율	2.80	2.81	3.91	4.5	4.78	7.20
기타	생산량	0.071	0.139	0.109	0.112	0.110	0.143
	비율	6.89	9.43	6.69	6.24	5.73	6.80

자료: FAO(2016).

그림 5 중국 차종별 생산 비중

단위: %



자료: FAO(2016)에서 재인용.

3. 마케팅 동향

3.1. 국내 소비

중국은 세계 최대 차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차 소비 대국이기도 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차 국내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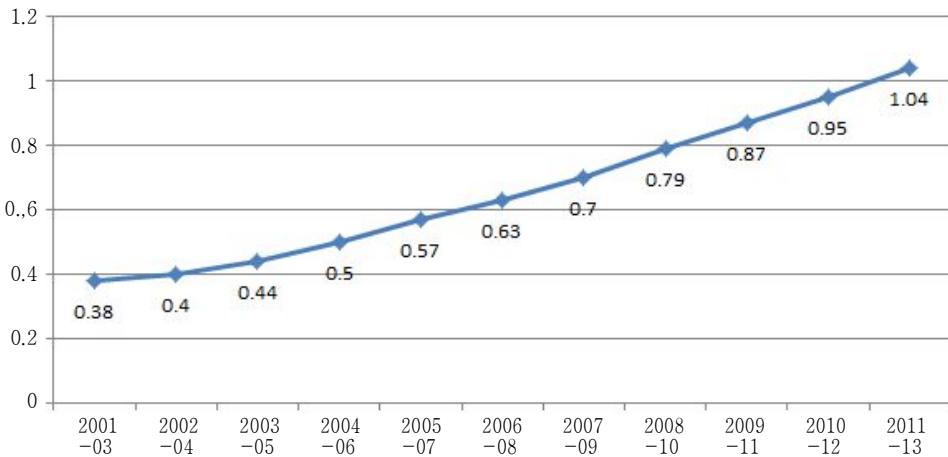
FAO는 중국의 차 소비량이 연평균 5%씩 증가하여 2013년에 123만 5,000톤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4년과 2015년의 차 소비량은 각각 130만 톤, 136만 5,000톤에 이른다.

ITC 통계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차 소비량은 2000년~2002년 기간에 0.37kg에서 2011년~2013년 기간에 1.04kg으로 증가했다<그림 6 참조>. 이는 연평균 10.89%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터키, 영국, 모로코, 쿠웨이트, 아일랜드,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차 소비 국가에 비해 연간 차 소비량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소비 촉진, 정확한 마케팅, 도농 간 시장 형성 등을 통해서 중국 내 차 소비량을 진작시킬 여지가 크다.

그림 6 중국 1인당 연간 차 소비량

단위: 1인당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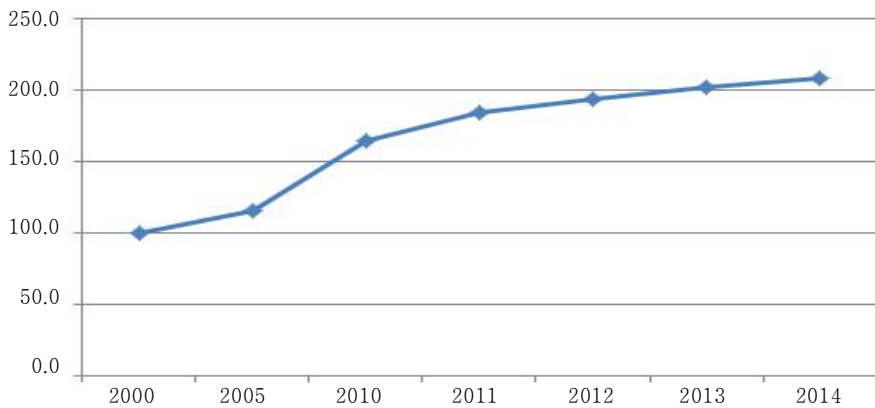


자료: FAO(2016)에서 재인용.

3.2. 소비자가격

국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차의 소비자가격도 크게 올랐다. 2000년 소비자가격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4년 소비자가격지수는 2배 이상 상승한 208.9이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중국 차의 소비자가격지수는 연평균 6.7% 증가하였다. 소비 수요 증가 외에도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와 국제 차 가격 상승이 차 소비자가격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7 중국 차 소비자가격지수 변화 추이(2000년=100)



자료: FAOSTAT(접속일자: 2016.6.30) 자료 재구성.

표 5 중국 월별 차 소비자가격지수(2000년=100)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100	116.3	165.2	184.7	193.6	202.6	208.9
1월	100	112.4	156.1	172.2	190.5	196	203.2
2월	100	113.8	156.8	174	184.3	195.4	200.6
3월	100	115.7	159.3	178	191.5	196.6	204.7
4월	100	116.4	162.7	181.4	194.1	201.9	206.6
5월	100	117.3	163.2	182.3	194	200.2	208.4
6월	100	117.8	164.1	187.8	194.9	204.5	212
7월	100	119.1	166.9	191.6	196.2	206	213.4
8월	100	117.2	167.4	189.9	196.3	205.5	211.7
9월	100	117.1	168.5	191.1	195.9	207.9	212.6
10월	100	117.5	171.3	191.7	195.2	207.9	213.1
11월	100	115.3	172.5	187.6	193.3	204.7	209.4
12월	100	116.1	173.2	188.9	196.9	204.9	210.9

자료: FAOSTAT(접속일자: 2016.6.30).

3.3. 품질 관리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차 재배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 무공해 차 재배면적은 164만 ha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다. 무공해 차 재배면적은 전체 차 재배면적 중 63.63%를 차지한다. 게다가 유기농 차 재배면적은 15만 2,000ha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중국의 전체 차 재배면적 중에서 유기농 재배면적의 비중은 5.91%이다.

중국 정부는 차재배의 표준화, 병충해 방제, 친환경 예방·관리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해 차 가공 과정에서 기준 조건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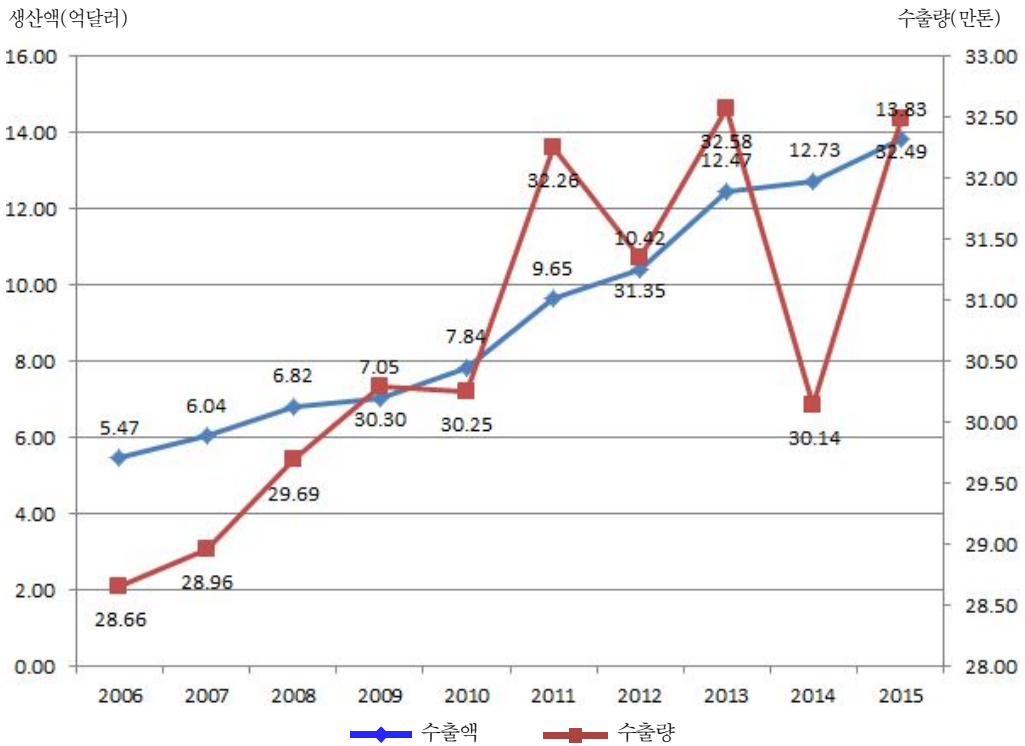
3.4. 수출입

3.4.1. 수출

지난 10년간 중국의 연차별 차 수출량은 변동이 심한 반면에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2013년, 2015년에 중국 차 수출량은 모두 32만 톤을 넘었다(각각 32만 2,600톤, 32만 5,800톤, 32만 4,900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과 2014년에는 수출량이 대폭 줄어들었다(31만 3,500톤과 30만 1,000톤). 2015년에 차 수출량은 32만 4,900

톤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이다. 차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녹차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24만 9,000톤이 수출되었고, 홍차는 전년 대비 15.6% 감소한 2만 8,000톤이 수출되었다. 청차(오롱차)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1만 5,000톤이 수출되었고, 흑차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3,400톤이 수출되었다. 차 수출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해에도 차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것은 차 단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차 수출액 증가율은 10.86%에 달한다.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차 수출액은 13억 8,300만 달러였다. 이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수치이다<그림 8 참조>.

그림 8 중국 차 수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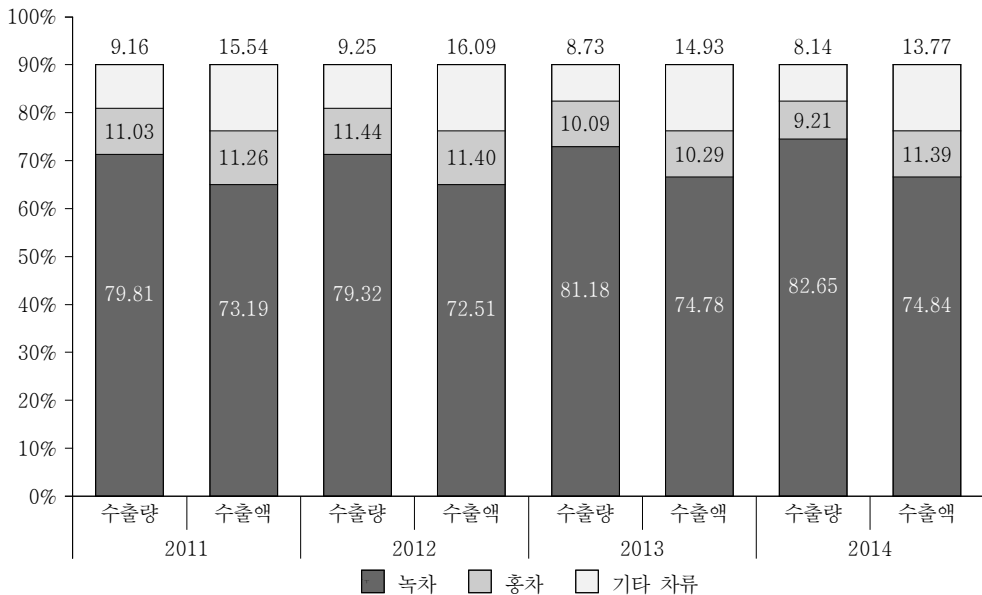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접속일자: 2016.6.30) 자료 재구성.

중국 차 수출에서 각 차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녹차가 중국의 주요 차 수출품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녹차는 전 세계 녹차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중국의 홍차 수출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은 2만

8,000톤의 홍차를 수출하였고, 중국 전체 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1%이다. 청차(오롱차), 흑차 등 기타 차류는 중국 차 수출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녹차에 비해 기타 차류의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06-2010년에 기타 차류의 연평균 수출량은 3만 4,100톤이었으나, 2011-2014년에 2만 7,900톤으로 떨어졌다. 기타 차류는 국제 차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작다. 중국은 국제 차 수출시장에서 자국의 녹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에 흑차 등 기타 차류의 판매를 위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그림 9 참조>.

그림 9 중국 차 수출 차종별 비중



자료: FAO(2016)에서 재인용.

중국의 주요 차 수출 대상국은 2015년 기준으로 모로코(2억 2,656만 달러), 홍콩(1억 1,675만 달러), 미국(9,131만 달러), 세네갈(7,538만 달러), 베트남(6,033만 달러), 토고(6,000만 달러), 일본(5,666만 달러), 모리타니(5,566만 달러), 알제리(5,222만 달러), 우즈베키스탄(5,040만 달러) 순이다. 수출 대상국 상위권에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70% 정도 된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차 수출 대상국 상위 10개국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모로코는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차 수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표 6 중국 국가별 차 수출(2015년)

단위: 톤, 천달러

국 가	모로코	홍콩	미국	세네갈	베트남	토고	일본	모리타니
수 량	64,437	10,310	16,360	17,221	2,065	13,311	13,072	12,865
금 액	226,563	116,750	91,319	75,383	60,338	60,008	56,663	55,662
국 가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독일	가나	러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말리
수 량	14,364	26,795	12,478	8,628	12,770	2,572	5,523	5,888
금 액	52,227	50,406	49,701	38,672	37,196	30,281	29,133	27,797
국 가	호주	미얀마	파키스탄	감비아	태국	리비아	캐나다	니제르
수 량	2,157	2,524	6,620	4,627	4,115	5,007	1,341	2,703
금 액	25,439	21,031	20,742	18,931	18,788	14,382	11,896	11,267

자료: Global Trade Atlas(접속일자: 2016.6.30.).

3.4.2. 수입

중국의 차 수출량은 변동이 심한 반면에 중국의 차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2010년에 차 수입량이 8,531톤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에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으로 2만 2,863톤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수출량인 32만 4,900톤의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중국의 주요 차 수입대상국은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차 주요 생산국에 속하는 스리랑카(7,800톤), 대만(2,139톤), 인도(4,785톤), 인도네시아(3,295톤), 케냐(848톤) 등이다. 상위 5개 국가가 중국의 전체 차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6%에 달한다.

표 7 중국 연도별 및 국가별 차 수입(2015년)

단위: 톤, 천달러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량	5,373	4,133	12,665	13,960	18,468	19,631	22,553	22,863
금 액	17,671	17,083	47,547	59,568	71,050	75,441	92,267	105,562
국 가	스리랑카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폴란드	베트남	영국
수 량	7,800	2,139	4,785	3,295	848	147	1,105	54
금 액	38,970	25,496	17,973	5,746	2,363	2,133	1,341	1,058
국 가	독일	말라위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라오스	모잠비크	일본
수 량	61	589	12	63	364	62	446	24
금 액	1,053	1,013	777	756	629	564	534	474

자료: Global Trade Atlas(접속일자: 2016.6.30.).

참고문헌

- 김경우. 2005. 「중국차의 세계」. 다도.
- 김정연. 2005. 「같은 잎 다른 맛 중국차 이야기」. 안그래픽스.
- 박기봉. 2015. 「다정의 티 스케치」. 무량수.
- 박기환 외. 2014. 「일본 및 중국의 차(茶) 산업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영환. 2013. 「중국의 차문화」. 문헌.
- 안규미. 2016. 스리랑카의 차(茶)산업 동향. 「세계농업 제19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헤럴드경제. 2016.02.29. 끓어오른다, 중국 차갈기.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5. 「中國統計年鑑 2015」. 中國統計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農業部. 2015. 「中國農業統計資料 2014」. 中國農業出版社.
- 江用文·程啟坤. 2013. 「中國茶業年鑑 2012」. 中國農業出版社.
- FAO. 2014. Current Situation Of Tea Production And Marketing In China. CCP:TE14/CRS4. FAO.
- FAO. 2016. Current Situation Of Tea Production And Marketing In China. CCP:TE16/CRS6. FAO.
- NPR. 2015. Sip It Slowly, And Other Lessons From The Oldest Tea Book In The World. May 26, 2015.
- NPR. March 28, 2010. The Tea Thieves: How A Drink Shaped An Empire.

참고사이트

- 네이버사전(<http://dic.naver.com>)
-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 半日閑(<http://www.banrix.com/mtf/tea/fazhan/scmy.htm>)
- 中國茶產地(<http://www.tea-jp.com/tea/santi/sanchi.html>)
- Chinese Tea(http://www.china.org.cn/learning_chinese/Chinese_tea/node_7122982.htm)
- FAOSTAT(<http://faostat.fao.org>)
-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 World Bank Data(<http://data.worldbank.org>)